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환경부, 농식품부	
담당	국무조정실 환경정책과	과장 이화원, 서기관 이지현 (044-200-2365, 2351)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과장 장재홍, 서기관 김종원 (044-201-2071, 2074)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과장 고경봉, 사무관 김상욱 (054-912-0601, 0612)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	과장 김영태, 사무관 조규황 (054-912-0653, 0667)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이준희, 사무관 이나영 (044-201-7245, 7242)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장 류종영, 사무관 신영락 (044-200-5770, 5771)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과	과장 전상률, 사무관 양기현 (044-205-5250, 525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과장 김종덕, 서기관 이효진 (042-481-7820, 7904)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에 범부처 총력 대응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6개 관계부처 차관회의
-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긴급 방역조치 등 초동대응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 정부는 9월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개체 및 석재에 살충처리·1차 소독, 석재 밀봉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금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9월 18일(화) 오후에 밀봉 보관해 두었던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와 공주개미 2마리 및 붉은불개미 군체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15시 30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을 위한 범부처 방역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환경부 차관·관세청 차장, 농식품부·행안부·해수부·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 실·국·과장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및 긴급 방역조치 상황 및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①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 9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되어 확인된 붉은 불개미는 일개미 7마리였으나, 9월 18일 전문가 합동조사* 과정에서 전날 밀봉해 두었던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마리 등 약 830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 환경부(국립생태원 4명, 국립생물자원관 1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명), 외부 전문가 2명, 검역본부 1명 등 총 10명

** 아파트 공사현장 바닥 및 주변지역 조사에서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음

○ 국경지역(항구, 보세창고) 외부에서 여왕 개미를 포함한 대량 군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 관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하역후 대구현장으로 직송 되었고, 또한 발견장소로 이동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결혼 비행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붉은불개미가 공사현장 이외의 국내 생태계로 확산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② 긴급 방역조치 등 초동대응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① (발견 현장) 정부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어제 발견현장에 살충제 살포 및 1차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여왕개미 및 군체 등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금일 전문 방역업체에서 약제소독을 실시했고, 내일 훈증소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붉은불개미 발견지점 반경 1km 내 10~3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하여 **예찰조사**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전문가 합동조사단 권고에 따라 **예찰범위를 2km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반경 500m까지 10m간격, 반경 500~1km까지 15~30m간격, 1~2km까지 50m 간격으로 트랩 설치

- 최초 발견일 ~ 1주일 : 매일 트랩 전수 조사
- 1주일 ~ 1개월 : 주 2회 트랩 전수 조사(추가 발견 없을 시)
- 2개월 ~ 6개월 : 2주 1회 조사

② (부산 허치슨·감만항 등 항만) 해당 석재가 수입된 부산 항만에 대해서는 이미 육안관찰 및 개미베이트 추가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주요 4개항(부산·인천·평택·광양)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외부 전문가에 의한 붉은불개미 조사용역을 실시해 왔는바, 이를 최대한 조속히 종료하여 항만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③ (트럭·컨테이너) 해당 석재가 실려있던 컨테이너 8개 중 3개는 이미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5개는 수출을 위해 신선대부두에 적치 중입니다. 적치중인 컨테이너 5개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해수부, 검역본부).

- 또한, 해당 석재를 적재하여 옮겼던 11대 트럭이 모두 확정이 완료됐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속히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 트럭의 그동안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적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개미트랩을 화물 하역장소를 중심으로 살포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환경부).

④ (국경검역 대폭 강화) 석재는 그 특성상 검역대상이 아니나, 세척하지 않아 나무뿌리 등이 붙어 있거나 외래 병해충이 섞여 있을 우려가 큰 석재에 대해서는 세관검역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26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 해당지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전 약제살포 및 국내 도착시 수입 항만에서 자진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⑤ (부처협조 및 제도개선) 붉은불개미가 공항·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본부·관세청이, 주택가·도심지일 경우에는 환경부·지자체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 사안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부처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석재에 대해서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현재 3개)으로 관리하여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이번 붉은불개미 방역·확산방지와 관련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생시 신속히 신고(☎044-201-7242, 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